

Session 05 인봉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계 6-7장) (The Seals of Judgement and God's Protection)

I. 일곱 인봉에 대한 소개

- A.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일곱 인봉이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다(계 5:7). 이 두루마리는 땅에 대한 권리와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며, 음녀 바벨론과 연합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풀어 놓으신다.
- B. 이 일곱 인봉은 **실제적이며**(단지 상징적이지 않고), **미래에 있을 일이며**(이 일의 궁극적인 성취는 미래에 있음), **점진적으로 진행되며**(강도가 증가함),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순서대로 풀려진다).
- C. 각 인봉은 자연적으로 다음 인봉으로 연결되어 풀려진다. 예를 들어, 첫째 인봉의 적그리스도(계 6:2)는 둘째 인봉의 세계 대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기근과 경제적 재난이 있는 다음 인봉으로 이어지며, 그 이후에 전염병과 질병 등으로 이어진다.
- D. 예수님께서 이 인봉들을 떼시는 시점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나는 예수님께서 아직 두루마리를 열지 않으셨다고 믿는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일은 예수님의 승천(AD 30년) 때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계시록 2-3장의 일들(AD 90년, 계 4:1)의 이후에 일어나며, 기도의 대접이 충만하게 된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계 5:8).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 4:1)

8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 E.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인 성숙한 기도 운동을 통해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에게 부여될 것이며, 이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심판이 풀어진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첫 네 개의 인봉에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막던 손을 떼신 결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서로에 대해 제한 없이 죄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대적하지만, 이 파괴는 결국 자신의 전 세계적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F. 일곱 인봉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다(계 5:5; 6:1,3,5,7,9,12; 8:1). 예수님께서서는 음녀와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 인봉 심판을 부으신다. 일곱 인봉의 목적은 어둠의 제국에 심판을 쏟아 부음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이 악을 퍼뜨리는 것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때에 믿지 않던 자들은 구원을 부르짖게 될 것이다.

1 내가 보매 어린 양(예수님)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KJV 흠정역 : 와서 보라) 하기로 (계 6:1)

- G. 요한에게 주어졌던 “와서 보라”는 이중적인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요한은 오라 (come)고 부름 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라(see)고 부름 받았는데, 이는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 H.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이며, 이는 성도들에게 부어지지 않는다. **심판의 원칙** :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최소한의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심.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살전 5:9)

II. 첫째 인봉 :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정복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 6:2)

- A. 첫째 인봉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일으켜 성도들을 죽이는 음녀(계 17:6,16)를 심판하신다. **흰색**은 의를 상징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초기 통치가 의롭게 보이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로 백마를 타신 예수님(계 19:11)을 흉내 낸 모조품이다.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 16 네가 본 바 이 열 뿔(적그리스도와 연합한 10개 나라)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7:6,16)

- B. 첫 네 개의 인봉들은 서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각 인봉은 특정한 색의 말이 말을 탄 자와 함께 나오며, 이것이 네 생물 중 하나의 예언적인 명령을 통해 풀어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 C. 초기의 적그리스도 통치는 **화살 없는 활로** 인해 얻어진다. 이는 그의 초기의 무혈 승리, 혹은 기만적인 외교를 통한 평화로운 정복을 말한다. 여기에 나온 말 탄 자는 손에 활을 들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활은 먼 거리에서 적을 칠 수 있는 전쟁을 말한다. 여기에는 화살이 없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전쟁이 없는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된다.
- D. 열방들은 거짓 세계 평화를 즐기고 있으나(살전 5:3), 이 평화는 첫째 인봉이 떼어지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섬으로 인해 끝나게 된다.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 E. 적그리스도는 정치적 명성의 상징인 **면류관**을 쓰고 있다(계 13:1-2,7).

- F.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받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허락하시며, 사단과 최악된 인간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심판을 위해 적그리스도를 풀어놓으신다(롬 13:1-7).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마 28:18), 예수님께서서는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영역에 대해 3년 반의 제한된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신다. “받고”라는 단어는 계시록에서 22번 사용된다.

7 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7)

- G. 어떤 이는 첫째 인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정복하시는 것으로 보거나, 역사를 통한 복음의 승리로 보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이 인봉이 로마 황제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고대의 군사적 활동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파르티아인의 로마 제국 침공으로 보기도 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은 과도한 영적 해석으로써, 말씀의 상세한 부분들이 무시되며(화살 없는 활, 하나뿐인 면류관-여러 개가 아닌-, 역사 속에서 복음의 승리의 결핍), 첫째 인봉이 첫 네 개의 인봉들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특별한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말은 예수님의 것으로 보고, 나머지 세 마리의 말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예수님을 나머지 세 말 탄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해석하기도 무리가 뒤따른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시록의 3군데 전략적인 위치에서 빛나는 광채로 영광스럽게 계신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계 1:12-18; 14:14-16; 19:11-16). 예수님은 단지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든 채 흰 말을 타고 계신 분이 아니다. 계시록 6:2절과 흰 말을 탄 자와 계시록 19:11-16절의 흰 말을 탄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III. 둘째 인봉 : 지구적 피 흘림과 마지막 세계 대전 (계 6:3-4)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 6:3-4)

- A. 큰 칼은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피 흘림을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화살 없는 활에서 시작했으며(2절), 이제 가까이에서 치는 큰 칼을 이용한다.
- B. 적그리스도는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열방으로부터 “평화를 제해버리며”, 이로 인해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계 17:1-17).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 16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적그리스도)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7:1-16)

IV. 셋째 인봉 : 기근과 경제 재난 (계 6:5-6)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Session 05 인봉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계 6-7장)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계 6:5-6)

- A. 검은 말은 4절의 세계 대전 이후에 일어나는 기근과 경제적 재난을 말한다. 가장 심각한 기근과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것처럼 식량을 배가시키거나, 모세 때에 초자연적으로 식량과 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 B.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밀 한 되는 (최소한의 다이어트 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이다. 이는 경제 재난으로 인해 하루 동안 일해서 하루 정도의 식량을 살 돈 밖에 벌지 못함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구매력의 1/10에 해당한다. 밀은 보리보다 맛과 영양에 있어서 뛰어나다. 같은 돈이라면 보리는 밀에 비해 3배의 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V. 넷째 인봉 : 지구 인구 1/4의 죽음 (계 6:7-8)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계 6:8)

- A. 청황색(문자적으로 창백한) 말은 죽음 혹은 시체가 썩은 색의 말을 말한다. 사망은 육신이 무덤에 묻히는 일을 말한다. 음부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이 천년왕국 이후에 불못으로 가기 전까지 있게 되는 감옥을 말한다.
- B. 사망으로 해석된 단어는 “전염병” 또는 “질병”을 말한다. 치명적인 질병들이 역사상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며, 사나운 짐승들은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돌아다닐 것이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부르신 심판과 동일한 것이다(겔 5:17; 14:21). AD 2025년경에는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이 된다고 한다. 이 숫자의 1/4은 20억이며, 이는 제 2차 세계 대전 사망자의 50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VI. 다섯째 인봉 : 심판을 풀어놓는 기도 (계 6:9-11)

9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분향단) 아래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 6:9-11)

- A. 다섯째 인봉은 기도 운동에 초자연적인 권능이 부여되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 제국 위에 더 큰 심판을 풀어놓게 된다. 이 부분은 계시록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다. 이 인봉은 심판으로 인해 순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이 인봉 심판은 어둠의 제국 위에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 B. 각 인봉 심판은 하나씩 전개될 때마다 그 강도가 증가한다. 즉, 다섯째 인봉은 앞서 있었던 네 개의 인

Session 05 인봉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계 6-7장)

봉 심판보다 더 맹렬한 심판이다. 성도들의 피는 기도 운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의인의 피 흘림은 예수님 안에 복수를 향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계 19:2).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값으셨도다 하고 (계 19:2)

- C. 우리는 이 시기의 하늘의 기도 사역을 통해 땅에서의 기도 사역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께서는 동일한 하나된 것을 땅에 풀어놓으실 것이다.
- D. 이는 개인적인 복수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제국의 배역한 자들을 제거해 주시길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긍휼을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행동들이 멈춰지길 원한다.
- E.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기도 중에 하나이다(속 1:12; 시 6:3; 13:2; 74:10; 79:5; 80:4; 89:46; 90:13; 94:3; 단 8:13; 12:6-13). 이 기도는 적그리스도의 잔인함에 대해 공의를 부여하실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실 것과,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이다.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그분의 뜻에 대한 동의)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8)

- F. 계시록 6:12-17절은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써, 적그리스도에게 나팔과 대접 심판이 풀어지기 시작한다(계 8-9장; 16장).
- G. 이 기도는 그들의 피에 대해 예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복해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나온 순교자들을 역사 가운데 있어왔던 모든 순교자들로 해석하면,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드러질 당시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는 측면을 간과되게 된다.
- H.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 거룩하고 참되심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두 가지 측면이다(계 3:7). 성도들은 예수님의 선하신 주권적 능력에 담대히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을 거스르지 않기에 거룩하며, 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심판하시기에 참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가혹하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은, 어떤 오류도 없는 정확한 심판이다.

VII. 여섯째 인봉 : 우주적 혼란 (계 6:12-17)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2-17)

Session 05 인봉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계 6-7장)

- A. 여섯째 인봉이 떼어짐으로, 적그리스도 제국을 심판하는 우주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 인봉으로 인해 나팔과 대접 심판을 통해 풀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시작된다. 순교자들이 부르짖는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믿지 않던 이들이 외친다, “우리를 가리우라.”
- B. 이때에 큰 지진 또는 전 세계적인 지각 운동이 있게 될 것이다(학 2:6; 히 12:26-28). 지진은 계시록에 7번 예언되어 있다 (계 6:12; 8:5; 11:13[2x],19; 16:18[2X]). 여기서는 모든 산들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기보다,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일 산들이 모두 파괴되면 아무도 그 속에 숨을 수가 없게 된다. 산들은 일곱째 대접 때까지 남아 있다(계 16:20).
- C.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며, 화산 폭발로 인한 재나 부스러기들이 하늘을 가리는 자연 현상, 또는 세계 무역 센터 붕괴에서 연기가 며칠 동안 햇빛을 가렸던 것처럼 연기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11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눅 21:11)

25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계 21:25-26)

- D.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행성과 운석이 땅으로 쏟아져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별들에 대한 헬라어는 *aster*인데 이 단어에서 소행성(asteroid)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여기서의 별은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를 말하며, 별들과 혜성, 운석, 소행성이나 여타의 불붙은 암석을 말한다. 지구의 지름은 8,000마일(12,800km)에 가깝다. 태양계의 해는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 큰 1,280,000km 정도이지만 작은 별에 속한다. 하나의 별이라도 지구에 부딪치게 된다면 지구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에, 땅의 임금들은 산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다. 이는 별이 지구와 충돌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운석이나 기타 다른 물체가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별들은 넷째 나팔 심판까지 하늘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계 8:12).
- E. **하늘이 떠나가고, 또는 두루마리가 말려감** 같다는 것은 하늘에 “창(window)”이 열려 세계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목격할 수 있게 됨을 말한다. 세계의 리더들은 그들의 지위와 관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때는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대접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다(계 19:17-21).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선두주자들이 첫째 인봉이 떼어질 때부터 이를 선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능히 서리요?”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7)

VIII. 첫째 삽입 구절 : 누가 능히 서리요? (계 7:1-17)

Session 05 인봉 심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계 6-7장)

- A. 삽입 구절들은 대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나, 그 후에 권능과 보호와 인도하심, 상급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삽입 구절들은 계시록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질문에 대답해주는 해석적인 부분이다. 첫째 질문은, “이 심판들이 왜 이리도 가혹한가?”이다. 즉,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난폭하실 수 있는가?”의 부분이다. 둘째는,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할 것인가? 그리고 기름부음 받음으로 미혹과 핍박에 맞서게 될 것인가?”의 부분이다. 다섯 개의 삽입 구절들은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답해주고 있다.
- B. 이 삽입 구절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이 되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144,000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승리 가운데 설 것을 밝히시며(계 7:1-8), 이방인 순교자들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강건하게 설 것을(계 7:9-17)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에 대해 확인시켜준다.
- C.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적, 영적으로 보호하는 하늘의 인이 쳐지는 것을 목격한다.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 7:1-4)

- D. 이 성도들은 승리에 대한 모델로 세워지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치시기 전에 보호하는 인을 받는다(계 7:3).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때문에 그들의 장자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과 같은 표식을 받았다. 이 모델 외의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는 인을 받을 것이다(계 9:4; 겔 9:6). 고센 법칙은 출 8:22-23; 9:4,6,26; 습 2:3; 시 91장에서 볼 수 있다.

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9:4)

4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좇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찌니라 하시매 ... (겔 9:4-6)

- E. 이방인 성도들(계 7:9-17) 또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설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인 보호함을 입을 것이다(계 9:4; 습 2:3; 미 7:14-19; 사 11:15-16).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 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
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계 7:9-17)